

「2023년 국가병원체자원은행 연보」 발간

- '23년 말 기준, 국가병원체자원은행에 등재된 병원체자원은 7,944주(1,051종)
* 신규 수집 자원 1,558주(391종), 신규 「병원체자원 보존·관리목록」 등재 자원 730주(314종)
- '23년 국내 보건의료연구 및 산업기관에 분양 활용된 자원 3,352주(177종)

질병관리청(청장 지영미) 국립보건연구원(원장 박현영) 국가병원체자원은행(은행장 이기은)은 「2023년 국가병원체자원은행 연보(Annual Report of National Culture Collection for Pathogens)」를 발간했다고 발표하였다.

※ 법적근거: 「병원체자원의 수집·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8조에 의거
국가병원체자원은행 설치·운영

2023년 한 해 동안 신규 병원체자원 1,558주(391종)을 수집하였고, 730주(314종)를 병원체자원 보존·관리목록에 등재하였으며, 보건의료 연구자 등에 3,352주(177종)를 분양하였다.

<최근 3년간 병원체자원 분양 현황('21~'23)>



병원체자원은 진단 기술 연구 활용으로 가장 많이 분양되었고 세균은 대장균(Escherichia 속)과 살모넬라균(Salmonella 속), 진균은 칸디다균(Candida 속), 바이러스는 코로나 바이러스(Betacoronavirus 속)가 주로 분양되었다.

2023년 연보에는 지난 한 해 확보한 병원체자원 및 분양 현황이 상세하게 소개되어 있으며, 분야별 병원체자원 전문은행과 관련된 정보, 시행계획 수립, 병원체자원 정보시스템 개선 등에 대한 소식을 담고 있다.

또한, 보유 병원체자원 활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패널자원 및 대체균주 개발, 분양 자원 활용성과 등이 수록되어 있다(붙임 참고).

박현영 국립보건연구원장은 “국가병원체자원은행이 고부가가치 유용자원을 확보하여 보건의료 및 바이오분야 학계와 산업계 등의 연구자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진단재백산치료제 등 관련 연구개발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.”고 전했다.

「2023년 국가병원체자원은행 연보」는 책자 및 전자파일로 국내 관련 기관에 6월 말 배포 예정이며, 국가병원체자원은행 누리집*에서도 열람이 가능하다.

* 국가병원체자원은행 누리집 (<http://nccp.nih.go.kr>)  연구성과  연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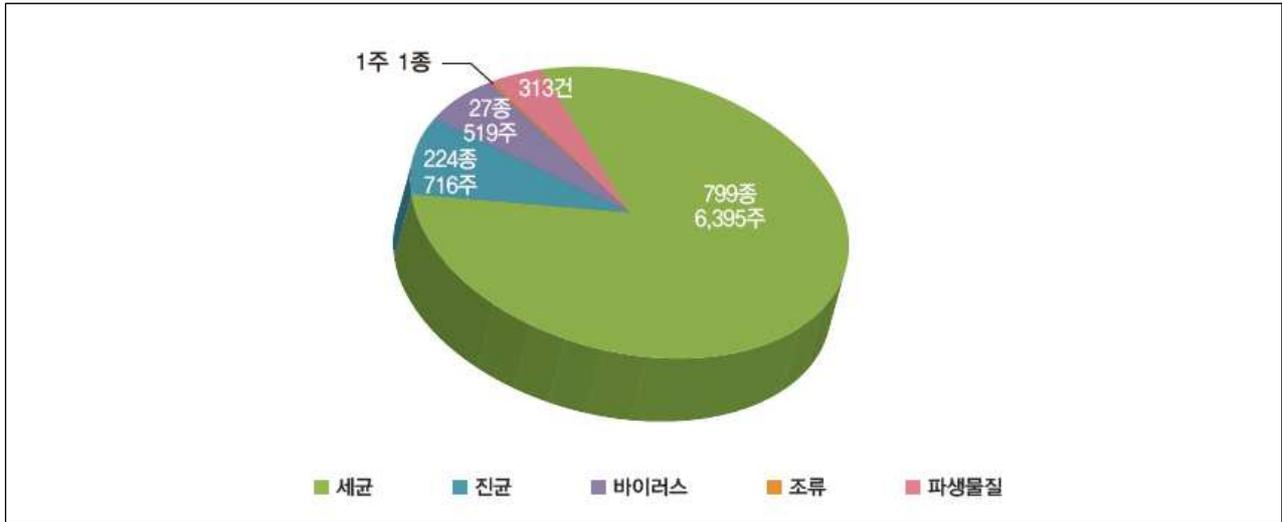
<붙임> 2023년 병원체자원 등재 및 분양 현황

담당 부서	국립감염병연구소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 병원체자원관리과	책임자	과장	강병학 (043-913-4250)
		담당자	연구관	김수연 (043-913-4251)
			연구원	김흥기 (043-913-4259)



□ 2023년 「병원체자원 보존·관리목록」 등재 현황

합계	세균	진균	바이러스	조류	파생물질
1,051종 7,944주	799종 6,395주	224종 716주	27종 519주	1종 1주	313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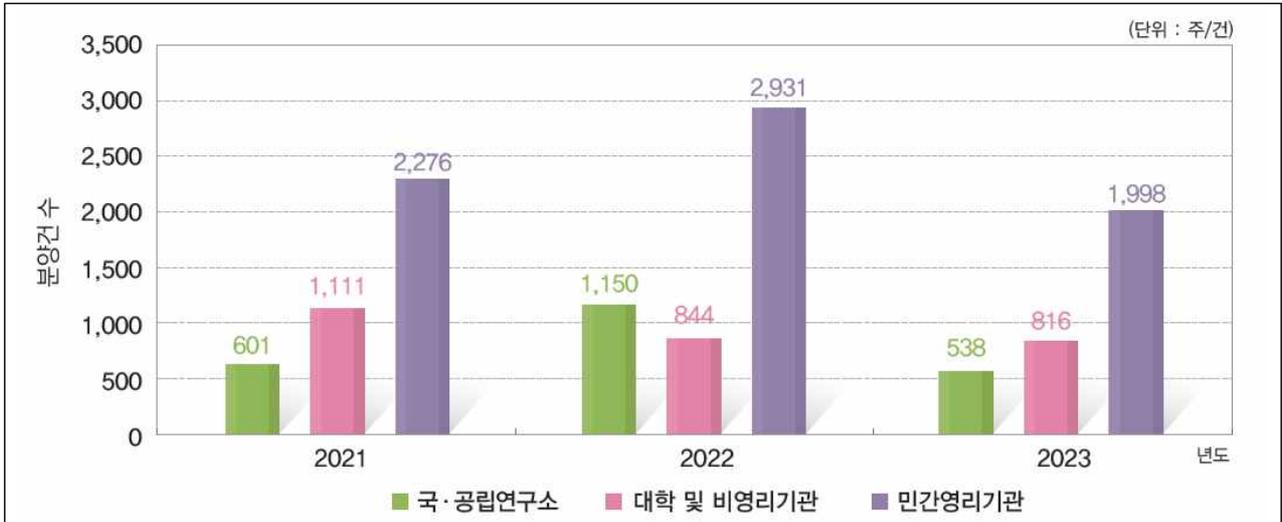
□ 2023년 병원체자원 신규 등재 현황

합계	세균	진균	바이러스	파생물질
314종 730주	221종 443주	87종 180주	6종 72주	35건



□ 최근 3년 기관별 병원체자원 분양 현황(`21~`23)

연도	국·공립연구소	대학 및 비영리기관	민간영리기관
2021	601	1,111	2,276
2022	1,150	844	2,931
2023	538	816	1,998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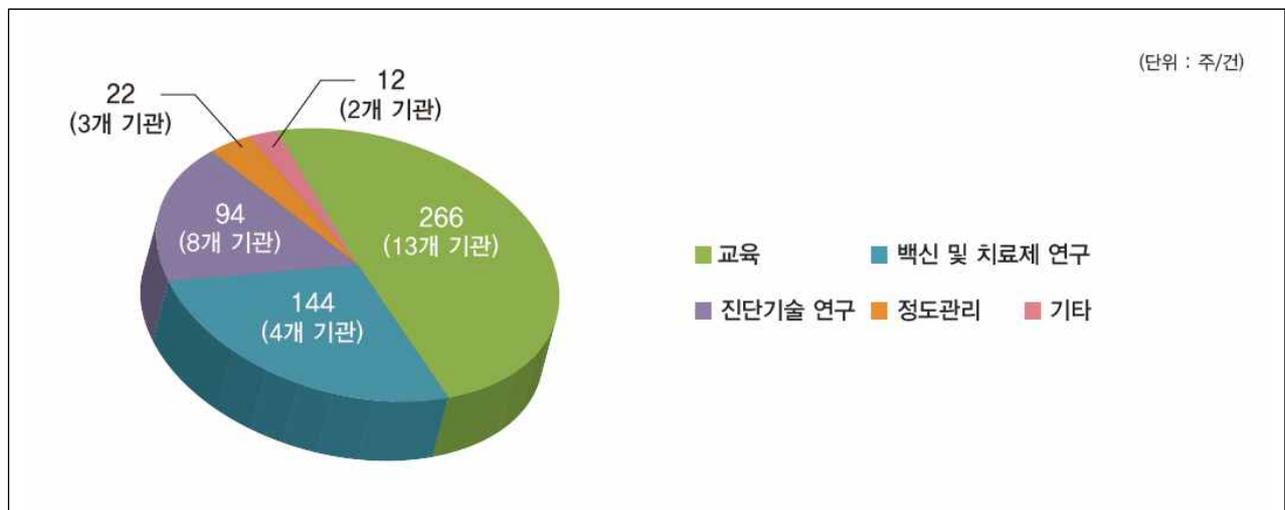


□ 2023년 병원체자원 분양 현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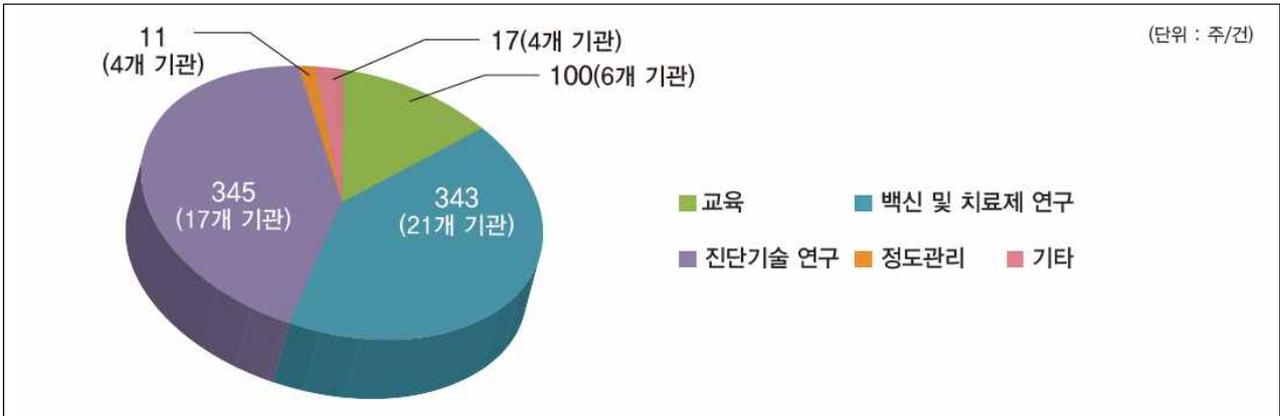
<분양 자원별 현황>

합계	세균	진균	바이러스	파생물질
177종 3,352주	138종 1,835주	20종 70주	19종 726주	721건

<국·공립연구소의 활용 목적별 분양 현황>



<대학 및 비영리기관의 활용 목적별 분양 현황>



<민간영리기관의 활용 목적별 분양 현황>

